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7년 2월 3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월 3(금) 오전 0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2. 3(금)	담당부서	원전수출진흥과
담당과장	한철희 과장 (044-203-5330)	담 당 자	이대길 사무관 (044-203-5332)

원전수출을 위해 산업·금융부문 역량을 집결하기로

- 산업부, 원전수출협의회 첫 회의 개최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는 '17. 2. 3.(금) **우태희 2차관 주재**로 **'원전수출협의회' 첫 회의를 개최**하고 한국전력, 한국수력원자력, 수출여신기관, 정책금융기관, 기자재 업체, 시공사 등과 함께 **원전수출 협력방안**을 논의했다.

< 회의 개요 >

- **일시 및 장소** : 2017. 2. 3(금) 07:30~09:00, 서울 팔래스호텔
- **주 재** :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2차관
- **참석 기관** : 한국전력, 한국수력원자력, 원전수출산업협회,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, 산업은행, 한전기술, 한전 KPS, 한전원자력연료, 두산중공업, 원전기자재 수출법인, 현대 건설·대우건설·삼성물산·SK건설·GS건설 등 총 17개 기관
- **논의 내용** : 세계 원전시장 수주 동향 및 대응 방안

○ 협의회는 원전 수출이 설계·건설뿐만 아니라 금융, 기자재 공급 등이 합쳐져야 하는 종합 패키지 사업인 점을 고려해 국내 원전 수출 유관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구성했다.

○ 산업부는 원전 수주 초기 단계부터 '원전수출협의회'를 통해 발주국의 여건을 진단하고, 해당 국가에 대한 맞춤형 수주 전략을 수립·논의할 계획이다.

□ 오늘 회의에서 원전수출산업협회 김인식 회장은 세계 원전시장 수주 동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"글로벌 기업은 전략적 협력*을 추진해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."고 설명하고,

* (일본 미츠비시 + 프랑스 AREVA) 중형급 원전 공동개발, 터키 원전 수주 (중국 CGN + 프랑스 EDF) 금융조달 제휴, 영국 신규원전 6기 수주 중(중국 2기, 프랑스 4기)

○ 원전 건설이 예상되는 **체코, 남아공, 영국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맞춤형 수주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**했다.

* (체코) '32년까지 1GW 원전 건설 추진 (남아공) '30년까지 9.6GW 원전 건설 추진 (영국) '28년까지 3.6GW 원전 건설 추진

□ 또한, 한국전력 유향열 부사장은 원전 건설 사업의 경우 **대규모 자금**($150억~300억 규모)이 투입되고 **투자회수 기간도 장기간**(14~18년)이므로 **국내 수출신용기관**(ECA)**의 역할이 중요**하다고 언급하고,

○ 원전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**국내 수출신용기관(ECA)에 대한 출자를 증액**하고, 정책금융기관과 **수출신용기관**간 협조 융자를 강화하며, 시중 은행 참여도 확대하는 등 금융 경쟁력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.

□ 오늘 **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2차관**은 "해외 원전 수주는 기술력 외에도 발주국에 대한 **산업·금융 지원을 총집결해야** 하는 과제다."라고 평가하고,

○ "국가별 산업협력 패키지 구성, 선진국과의 제휴를 통한 자금 조달 능력 제고 방안 등을 원전수출협의회에서 논의해 나가겠다."라고 말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이대길 사무관(☎044-203-53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